

文益新墓의 出土服飾

沈富子・全惠淑

目 次	
I. 序 論	2) 襦衣
II. 本 論	3) 袴衣
1. 出土經緯 및 年代	4) 頸衣
2. 出土 수의의 圖解 및 尺數	5) 足衣
3. 出土 수의의 構造와 特徵	6) 세조대
1) 袍	III. 結 論

I. 序 論

織物, 衣類는 문화적 遺物로서 製作 당시의 직조기술 봉제기술 및 형태구조를 研究하는 데 매우 귀중한 資料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纖維物質은 오랜 세월이 경과되면 胞化, 分解, 損傷되기 때문에 이것이 原形 그대로 보존되어 실제 발견되는 예는 거의 없어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뒤따라 文獻에만 의존해야 하는 不振한 실정이나, 70년대에 들어와 최근에도 국내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國土開發事業의 進展에 따라 우연히 발굴되는 出土服飾이 상당수 나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本 研究는 慶南 陝川郡 大井面 嶧坪 2區 所在의 文益新 墓 出土服飾으로 筆者가 재직하고 있는 東亞大學教 博物館으로부터 의뢰받아 復原作業 결과 얻은 外衣 2點, 襦衣 3點, 袴衣 3點, 頸衣 1點, 토막난 세조대 등 總 14點을 얻을 수 있었다.

文益新은 그의 生卒年으로 보아 壬亂을 前後한 사람으로 그의 墓에서 出土된 衣類의 종류와 특징을 分析해 봄으로 그 당시 嶺南地域의 土族層의 服飾을 이해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II. 本 論

1. 出土經緯 및 年代

이 수의는 1985年 3月 陝川댐 工事로 인하여 水沒地區內에 편입된 慶南 陝川郡 大井面 嶧坪 2區 山 17-6 烏山齊 부근에 있는 文益新 墓를 移葬하는 과정에서 出土된 것이다.

圓形封土內의 構造를 보면, 木槨外部는 사방이 灰壁으로 되어 마치 시멘트를 바른 듯 두텁게 굳어져 있고, 그 속에 있는 木槨은 검게 옷칠을 한 두께 10cm의 松板으로 組立되어 있었으며, 내부 木棺 역시 검게 옷칠이 된 10cm 두께의 松板이었다. 이렇게 密封된 상태였기에 관 속의 屍身이 미이러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移葬時에는 灰壁木槨의 남쪽 끝 부분만 破損시켜 관을 끌어낸 상태였다.

처음 破棺狀況을 參觀하지 못하여 수의의 원래 착용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점과 인부들이 함부로 벗겨내어 원상 보존을 할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파손된 수의나마 빛을 보게 된 것은 文益新의 10代孫인 大井中學校 文子煥 校長의 배려에 의해서였다. 인부들이 墓所 부

근에 함부로 묻었던 것을 다시 파내어 出土수의 전부를 東亞大學 博物館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博物館에 도착 당시는 損傷이 너무 심하여 형태분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惡息도 심하였던 것을 博物館 研究員들의 精誠어린 작업으로 형태를 알 수 있게끔 된 것만을 골라 놓았으며 이를 筆者가 인수받아 復原作業을 완료하였다.

南平 文氏 族譜에 의하면, 수의의 주인공 文益新은 明宗 11年 丙辰生(1556)이며, 仁宗 23年 乙酉(1645) 5月 1日 享年 90세에 卒하였으며, 字는 德邵이고, 通政僉樞를 지냈으며, 그의 兄 文益昌¹⁾과 함께 忠武公 李舜臣을 따라 壬辰倭亂에 참가하였으며, 兄 文益昌은 戰死하고 弟 文益新은 전란이 끝난 후 고향인 陝川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한다.

그의 墓에서 出土된 수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袍: 명주 솜 髦衣 1점, 명주 누비 솜 直領袍 1점.

襦衣: 명주 잔 누비 저고리 1점, 무명 솜 저고리 1점, 명주 누비 회장 저고리 1점.

袴衣: 명주 누비 솜 바지 1점, 명주 솜 속곳 1점, 삼베 단속곳 1점.

足衣: 무명 솜버선 3켤레, 무명 겹버선 1켤레.

頸衣: 목도리 1점.

帶: 세조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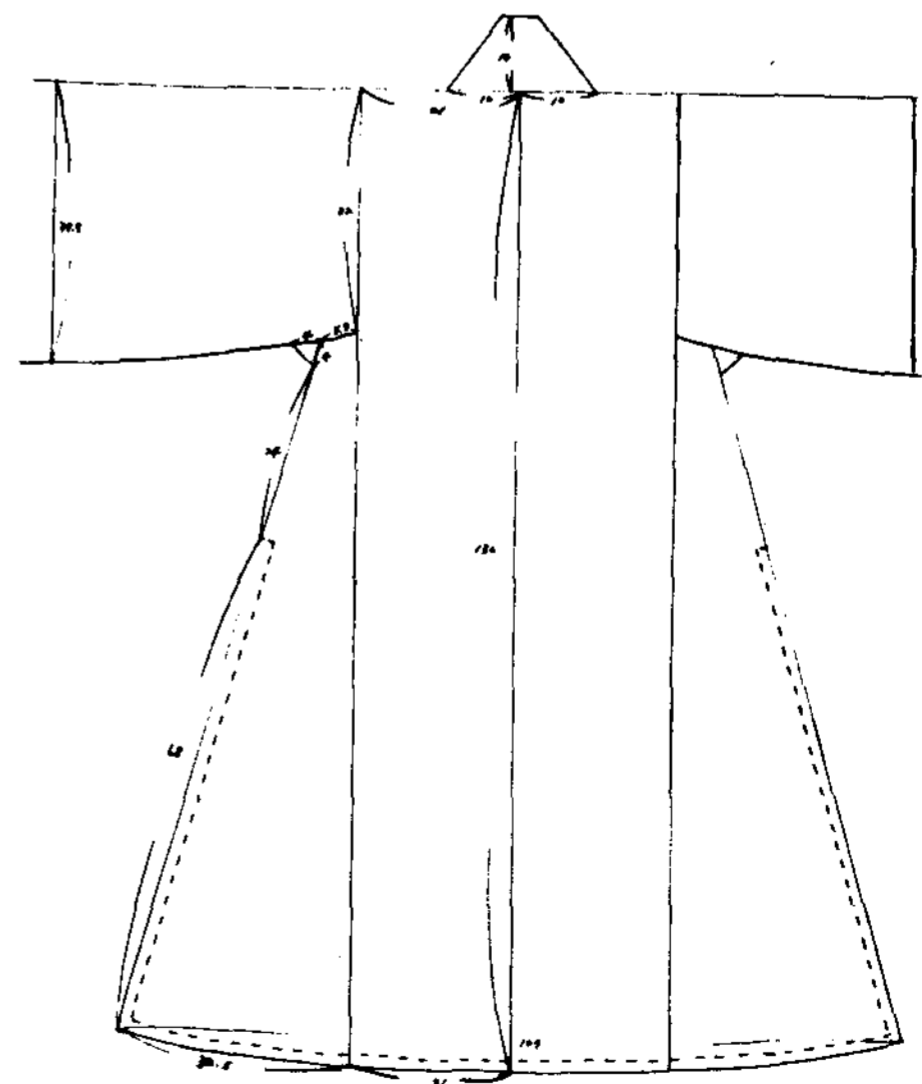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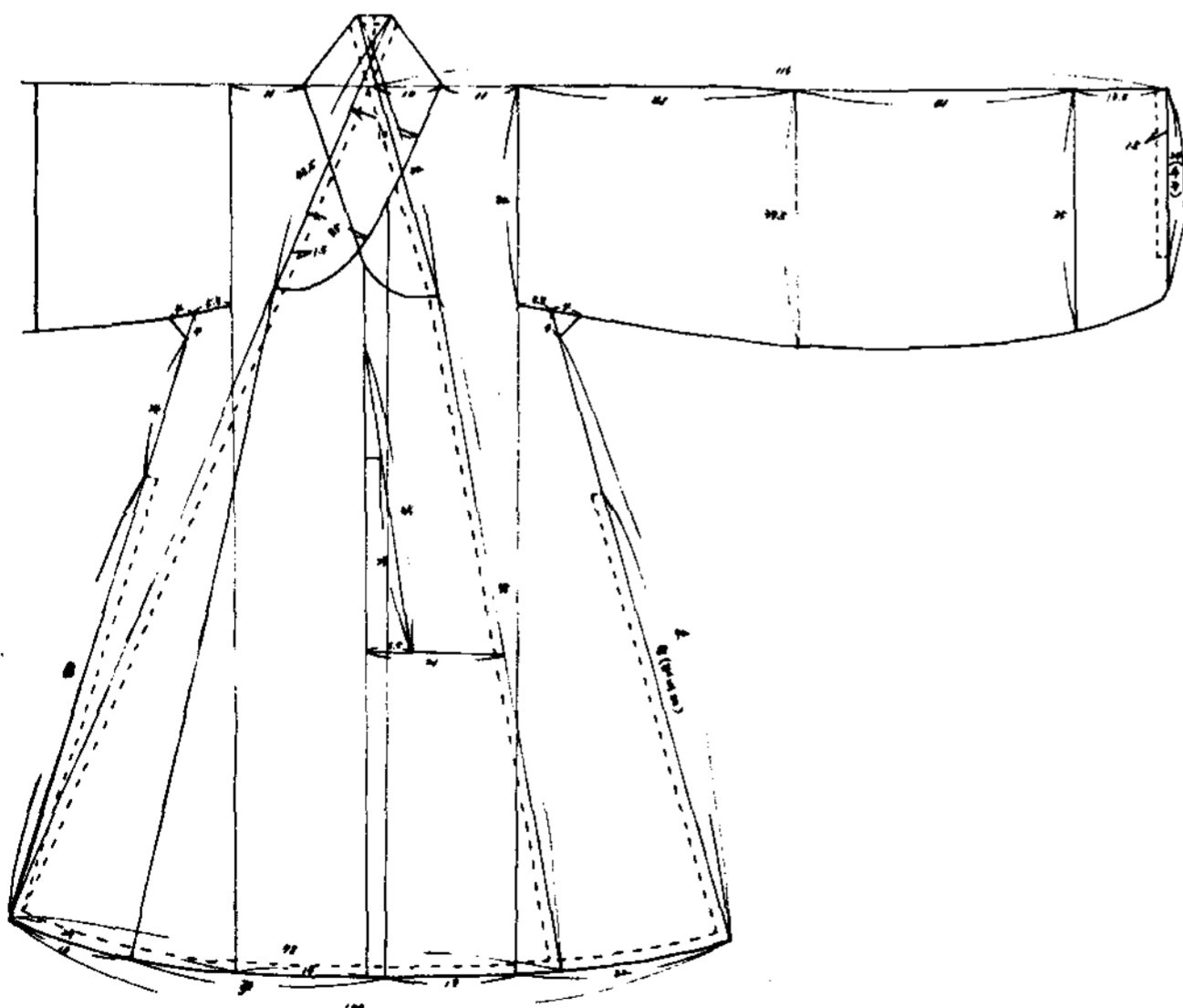
2. 出土 수 의의 圖解 및 尺数

(1) 袍

(1) 명주 솜 髦衣

명주 솜 창의 치수 (단위 : cm)

1. 총길이	: 130	14. 겹깃길이	: 44
2. 뒷품	: 56	15. 안깃길이	: 43
3. 화장	: 116	16. 깃넓이	: 겹깃 10
4. 고대	: 20		안깃 10
5. 소매길이	: 95.5	17. 동정길이	:
6. 소매넓이	: 37.5	18. 동정넓이	:
7. 진동	: 32	19. 동정위치(겹깃)	:
8. 수구	: 24	20. 동정위치(안깃)	:
9. 겹깃넓이(안)	:	21. 고름길이	: 좌, 우
	상 19, 하 38	22. 고름넓이	:
10. 안깃넓이	: 상 12	23. 무넓이	: 32
	: 하 28	24. 무길이	: 99.5
11. 겹깃길이(안)	:	25. 겨드랑바대	: 4 × 4
	안 118 밖 101	26. 옆선길이	: 92
	겹깃길이(밖): 100	27. 옆선트기	: 68
12. 안깃길이	: 안 104, 밖 100		
13. 깃길이	: 90.5		



<명주 솜 창의>

1) 字는 德叟 參奉을 지냈으며, 壬辰年에 義兵을 일으켜 存齊 曠준과 笑軒 趙宗道와 함께 黃石山城을 지키다 城이 함락되어 死節, 후에 衣冠祭로 장례를 치루었다 한다.

(2) 명주 누비 솜 直領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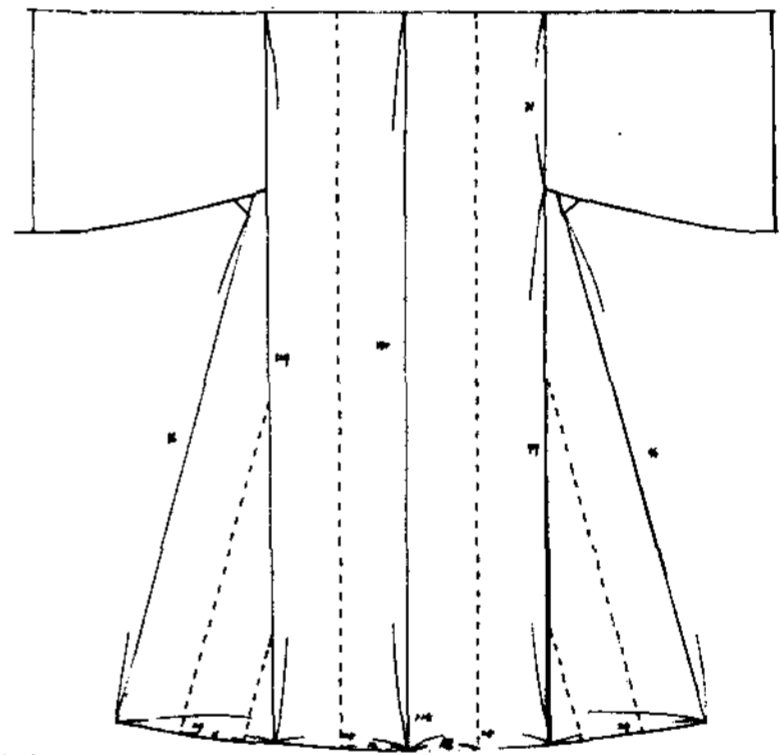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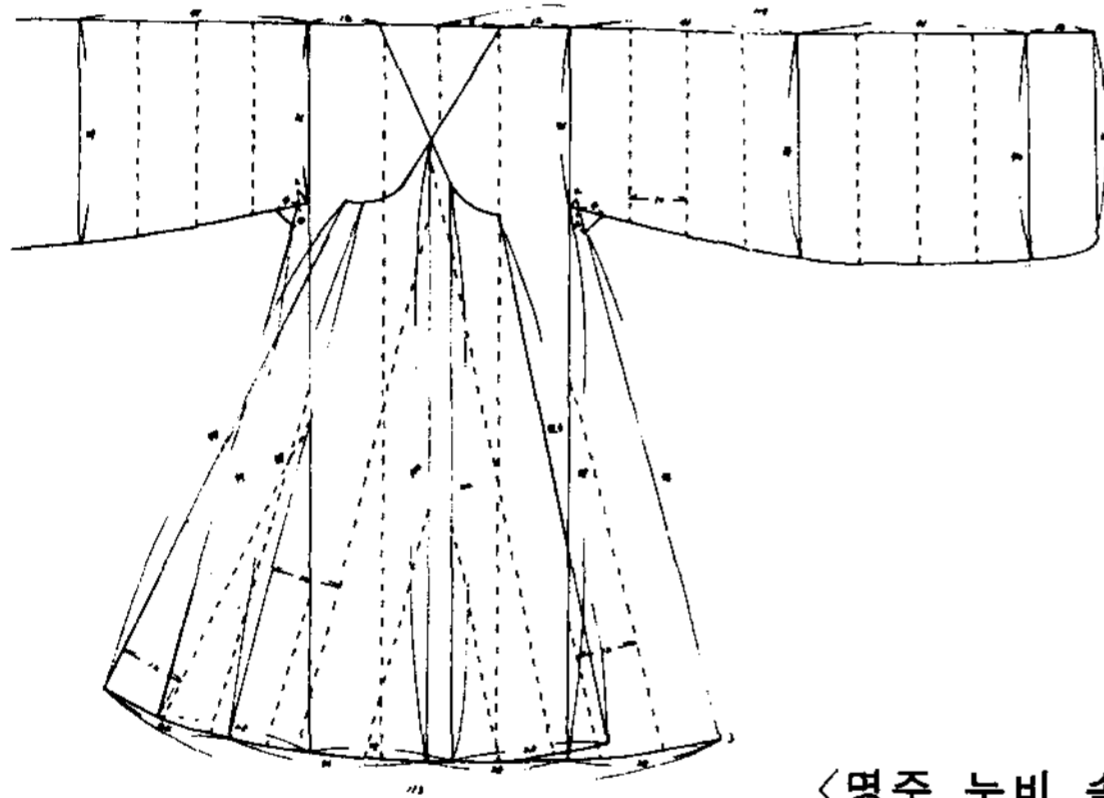
명주 누비 솜 直領袍 치수(단위 : cm)

- | | | | |
|-------------|------------|-------------|---------|
| 1. 총길이 | : 130 | 11. 결선킨이(안) | : 안 110 |
| 2. 뒷폭 | : 54 | | 밖 98 |
| 3. 화장 | : 117 | 12. 안선킨이 | : 안 102 |
| 4. 고대 | : 22 | | 밖 95.5 |
| 5. 소매길이 | : 94 | 13. 깃 | : 파손 |
| 6. 소매넓이 | : 40.5 | 14. 고름길이 | : 좌, 우 |
| 7. 진동 | : 31 | 15. 고름넓이 | : |
| 8. 수구 | : 35 | 16. 무넓이 | : 28 |
| 9. 결선킨이(안) | : 상 12 | 17. 무길이 | : 98 |
| | 하 36 | 18. 겨드랑바대 | : 4 × 4 |
| | (밖) : 상 3, | 19. 옆선길이 | : 96 |
| | 하 24 | 20. 옆선트기 | : |
| 10. 안선킨이(안) | : 상 7 | | |
| | 하 2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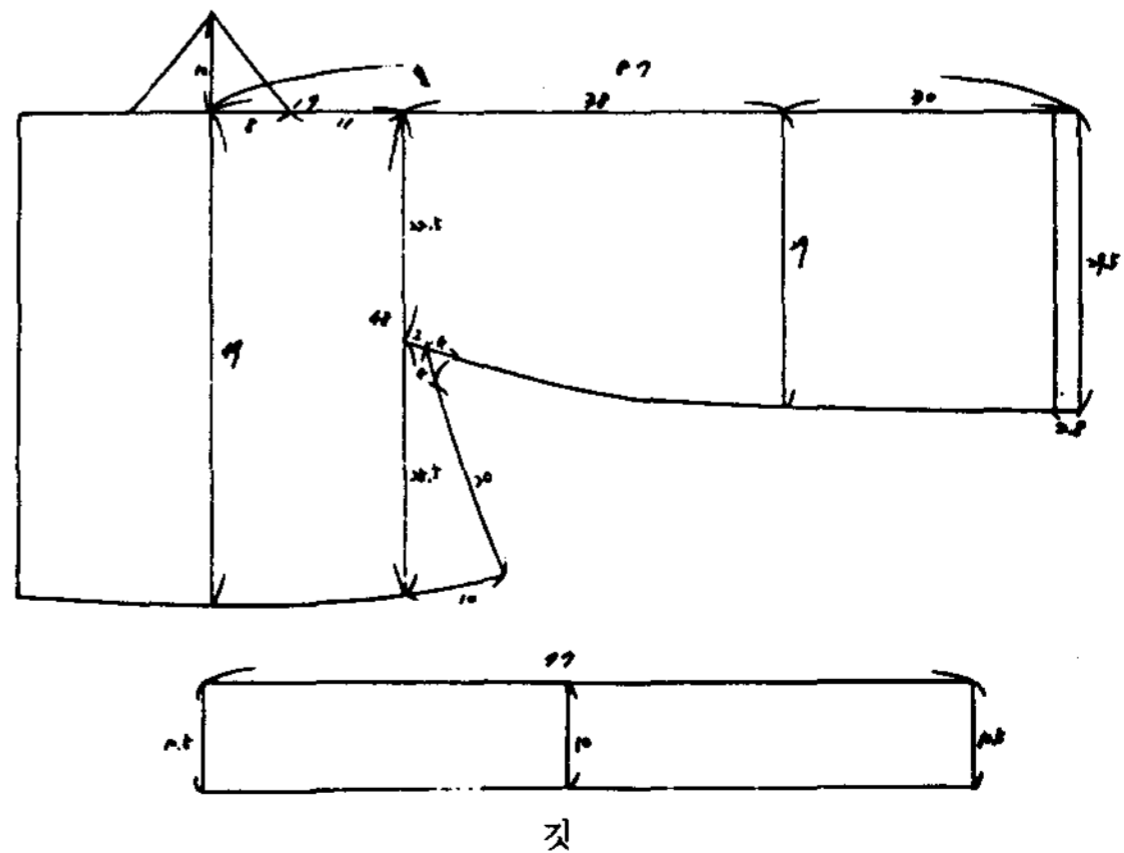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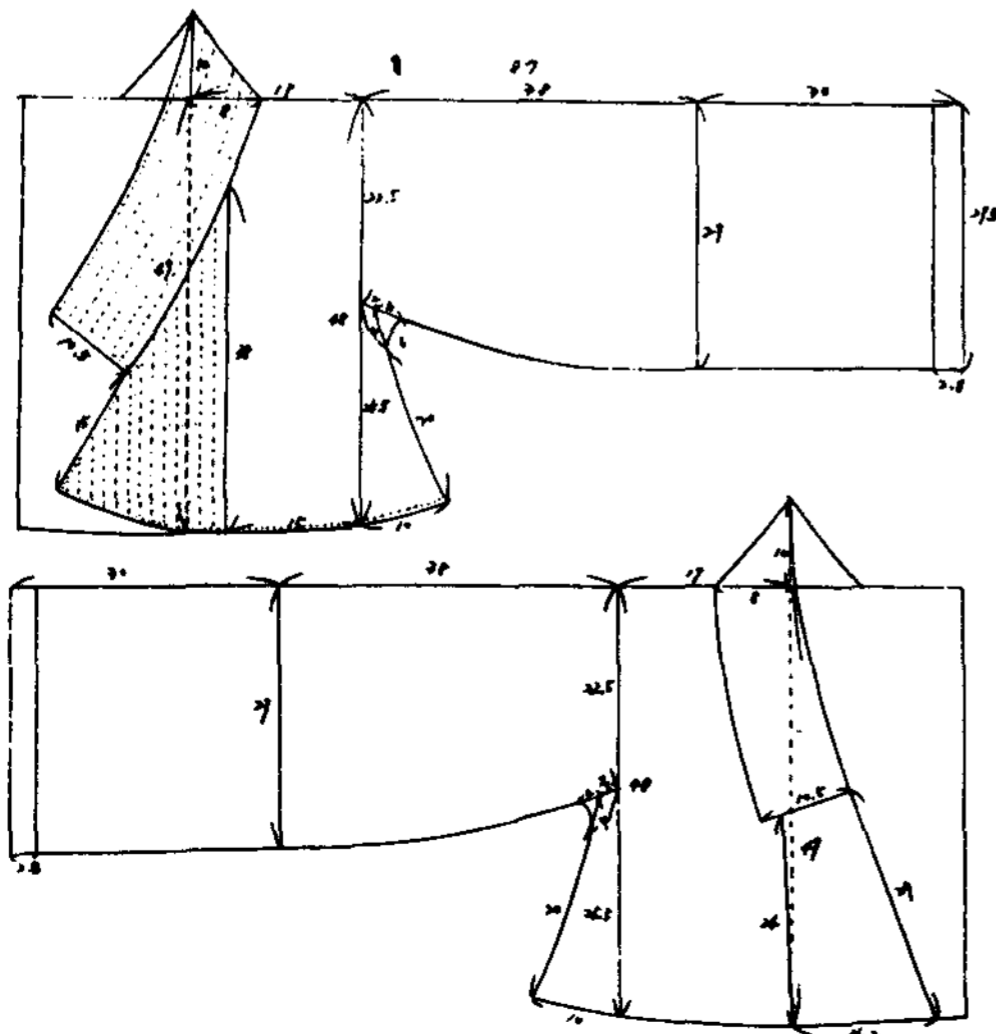
(2) 유 의

(1) 명주 잔 누비 저고리 (단위 : cm)

- | | | | |
|----------|--------------|--------------|-----------|
| 1. 총길이 | : 49 | 14. 결깃길이 | : 34.5 |
| 2. 뒷폭 | : 38(42) | 15. 안깃길이 | : 27 |
| 3. 화장 | : 87 | 16. 깃넓이 | : 결깃 10.5 |
| 4. 고대 | : 16 | | 안깃 10.5 |
| 5. 소매길이 | : 68 | 17. 동정길이 | : |
| 6. 소매넓이 | : 29 | 18. 동정넓이 | : |
| 7. 진동 | : 22.5 | 19. 동정위치(결깃) | : |
| 8. 수구 | : 29.5 | 20. 동정위치(안깃) | : |
| 9. 결선킨이 | : 상 11, 하 19 | 21. 고름길이(좌) | : |
| 10. 안선킨이 | : 상 8.5, | 22. 고름길이(우) | : |
| | 하 16.2 | 23. 고름넓이 | : |
| 11. 결선킨이 | : 안 38, 결 15 | 24. 무넓이 | : 10 |
| 12. 안선킨이 | : 안 24, 결 27 | 25. 무길이 | : 25.5 |
| 13. 깃길이 | : 77 | 26. 겨드랑 바대 | : 4 × 4 |



<명주 누비 솜 直領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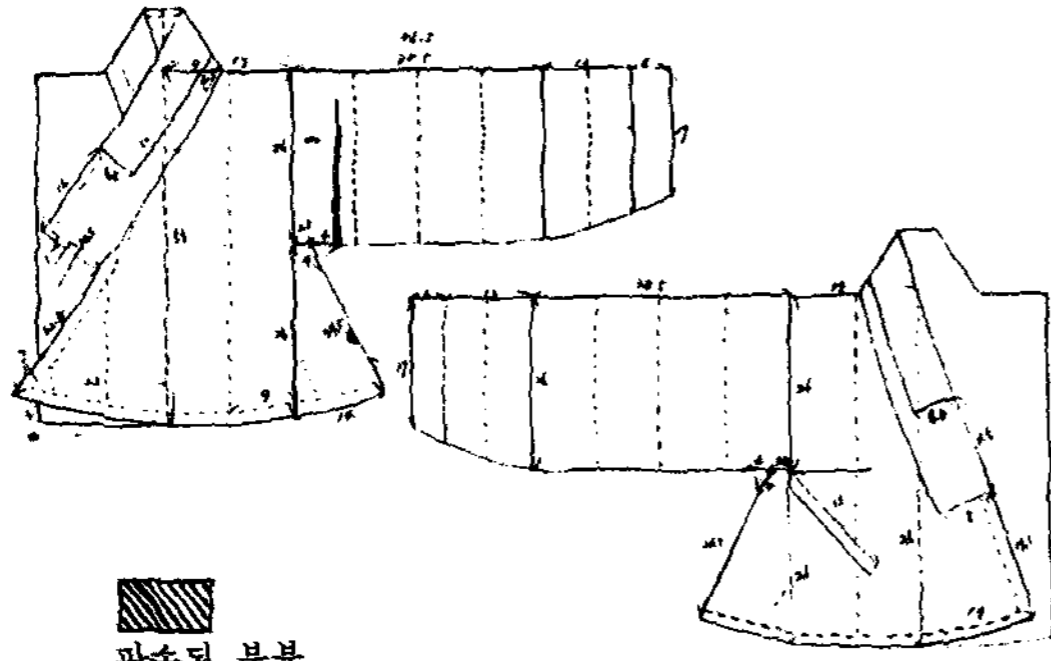


<명주 잔 누비 저고리>

(2) 명주 누비 화장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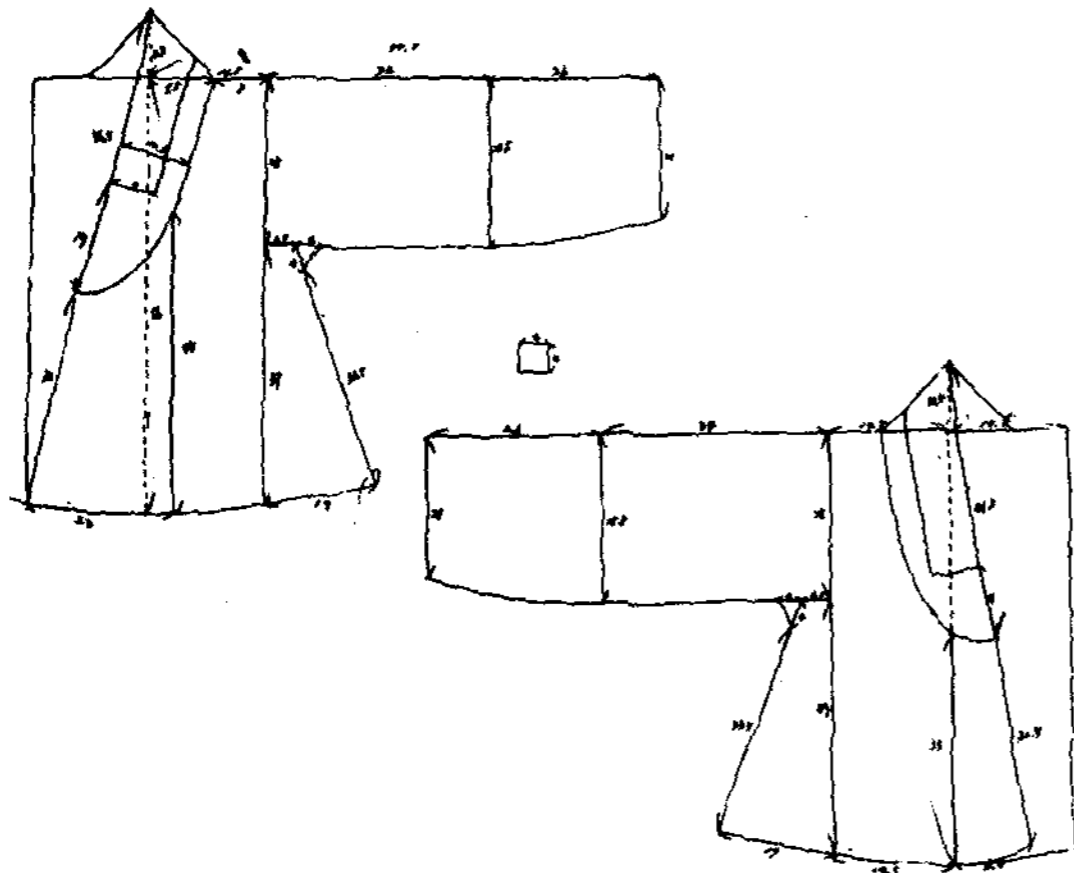
명주 누비 화장 저고리 치수 (단위 : cm)

- | | | | |
|----------|----------------|--------------|----------------|
| 1. 총길이 | : 53 | 15. 안깃길이 | : 42 |
| 2. 뒷폭 | : 38(43) | 16. 깃넓이 | : 겹깃10.5, 안깃 8 |
| 3. 화장 | : 76.5 | 17. 동정길이 | : 54.5 |
| 4. 고대 | : 18 | 18. 동정넓이 | : 6.5 |
| 5. 소매길이 | : 57.5 | 19. 동정위치(겹깃) | : 16 |
| 6. 소매넓이 | : 26 | 20. 동정위치(안깃) | : 15.5 |
| 7. 진동 | : 26 | 21. 고풀길이(좌) | : 파손 |
| 8. 수구 | : 19 | 22. 고풀길이(우) | : 18 |
| 9. 겹섷넓이 | : 상 10, 하 23 | 23. 고풀넓이 | : 2 |
| 10. 안섷넓이 | : 상 12, 하 17 | 24. 무넓이 | : 14 |
| 11. 겹섷길이 | : 안 38, 겹 22.5 | 25. 무길이 | : 26 |
| 12. 안섷길이 | : 안 26, 겹 19.5 | 26. 겨드랑바대 | : 4 × 4 |
| 13. 깃길이 | : 86 | 27. 옆선길이 | : 24.5 |
| 14. 겹깃길이 | : 40.5 | 28. 누비잔격 | : 9-10 |



파손된 부분

<명주 누비 화장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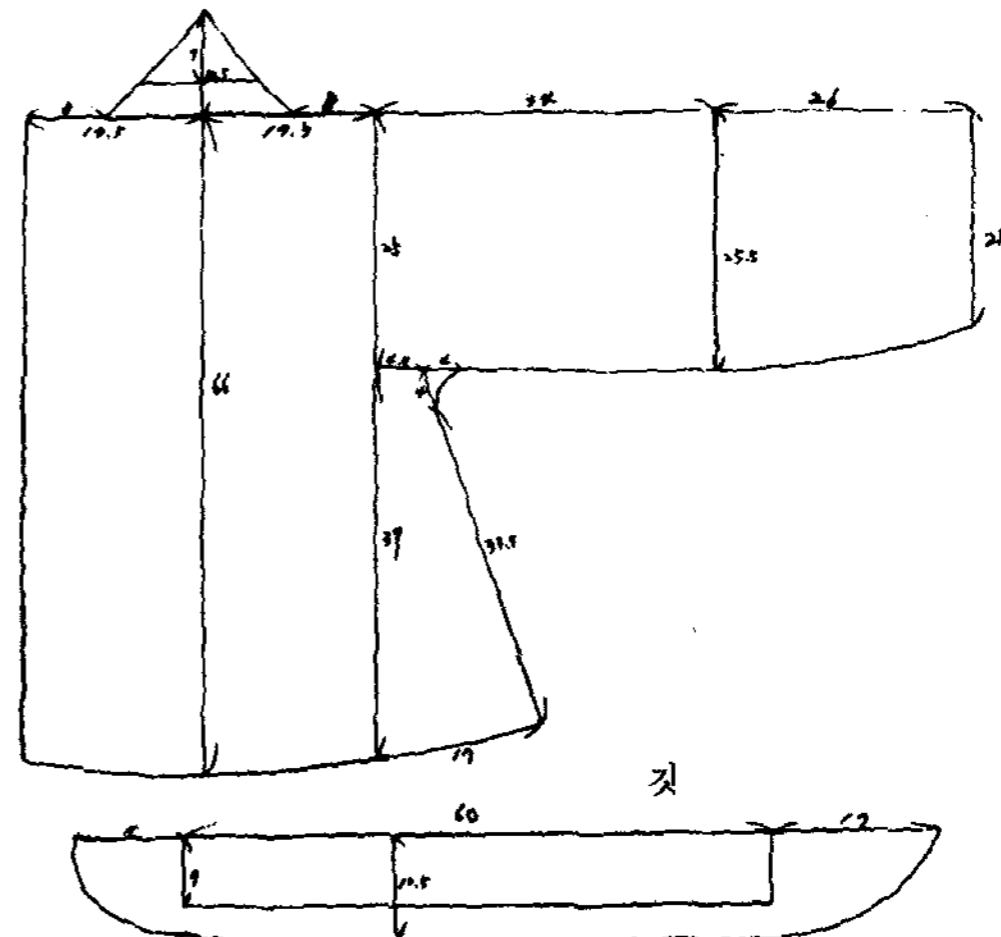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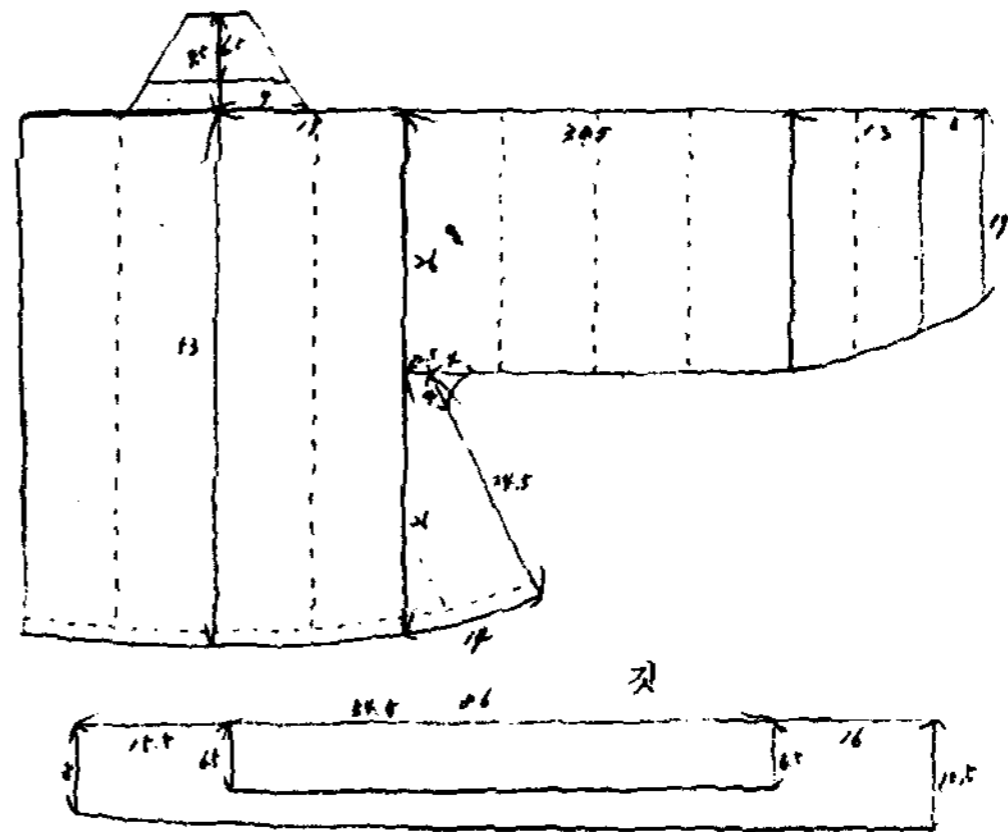


<무명 솜 저고리>

(3) 무명 솜 저고리

무명 솜 저고리 치수 (단위 : cm)

- | | | | |
|----------|-----------------|--------------|---------|
| 1. 총길이 | : 66 | 13. 깃길이 | : 88 |
| 2. 뒷폭 | : 35(44) | 14. 겹깃길이 | : 46.5 |
| 3. 화장 | : 77.5 | 15. 안깃길이 | : 41.5 |
| 4. 고대 | : 19 | 16. 깃넓이 | : 10.5 |
| 5. 소매길이 | : 77.5 | 17. 동정길이 | : 60 |
| 6. 소매넓이 | : 22.5 | 18. 동정넓이 | : 7 |
| 7. 진동 | : 25 | 19. 동정위치(겹깃) | : 17 |
| 8. 수구 | : 21 | 20. 동정위치(안깃) | : 11 |
| 9. 겹섷넓이 | : 상 14.5, 하 23 | 21. 고풀길이(좌) | : |
| 10. 안섷넓이 | : 상 6.5, 하 11.5 | 22. 고풀길이(우) | : |
| 11. 겹섷길이 | : 안 45, 겹 32 | 23. 고풀넓이 | : |
| 12. 안섷길이 | : 안 35, 겹 32.5 | 24. 무넓이 | : 17 |
| | | 25. 무길이 | : 39 |
| | | 26. 겨드랑바대 | : 4 × 4 |
| | | 27. 옆선길이 | : 33.5 |



[3] 고의

(1) 명주 누비 솜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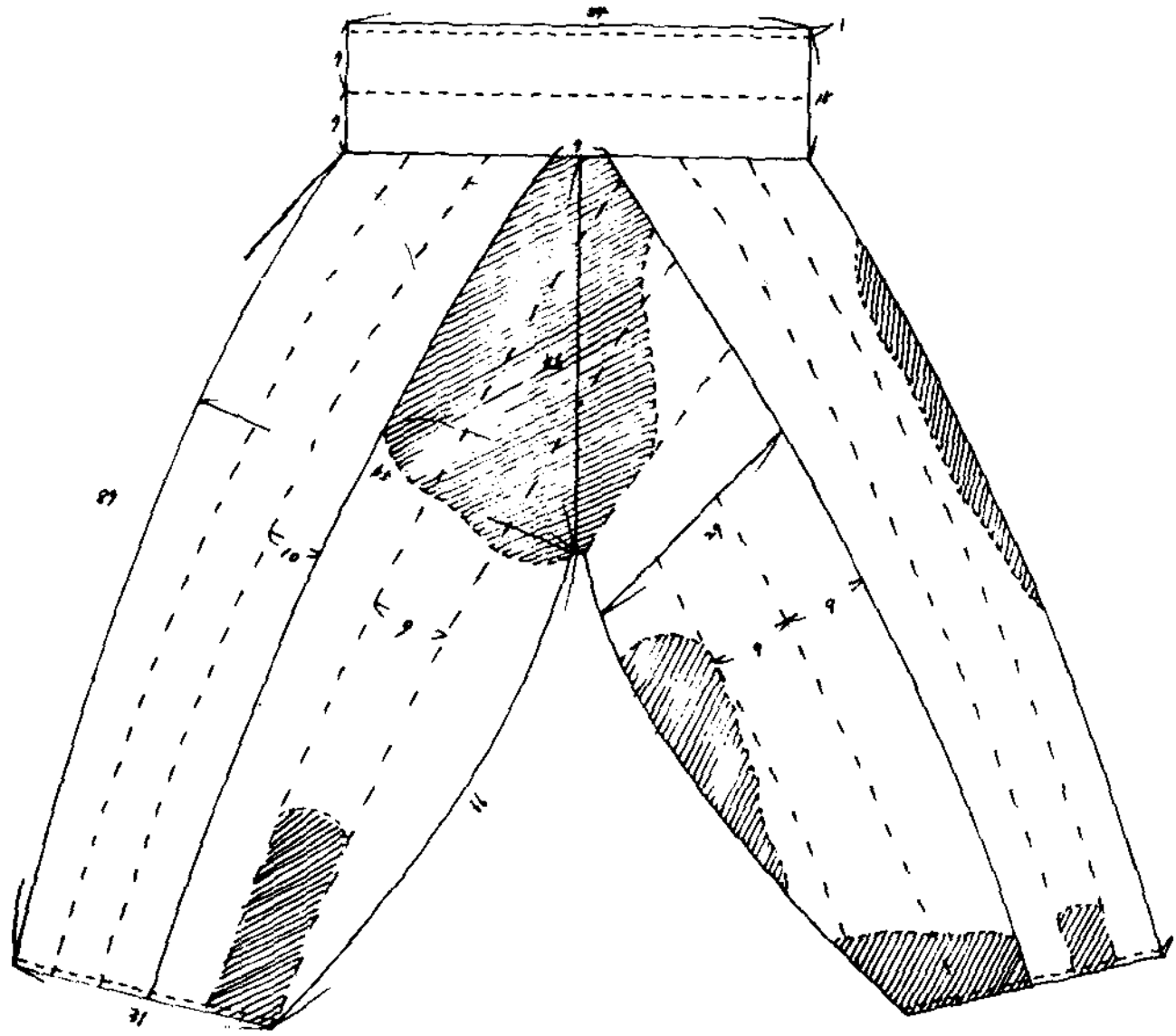
명주 누비 솜 바지 치수(단위 : cm)

- 1. 총길이 : 102
- 2. 허리둘레 : 108
- 3. 허리나비 : 15
- 4. 밑위 : 46
- 5. 바지길이 : 87
- 6. 부리 : 62
- 7. 큰사폭 : 폭 30, 길이 90
- 8. 작은사폭 : 폭 29, 길이 60
- 9. 마루폭 : 폭 42, 길이 90
- 10. 배래 : 66
- 11. 누비간격 :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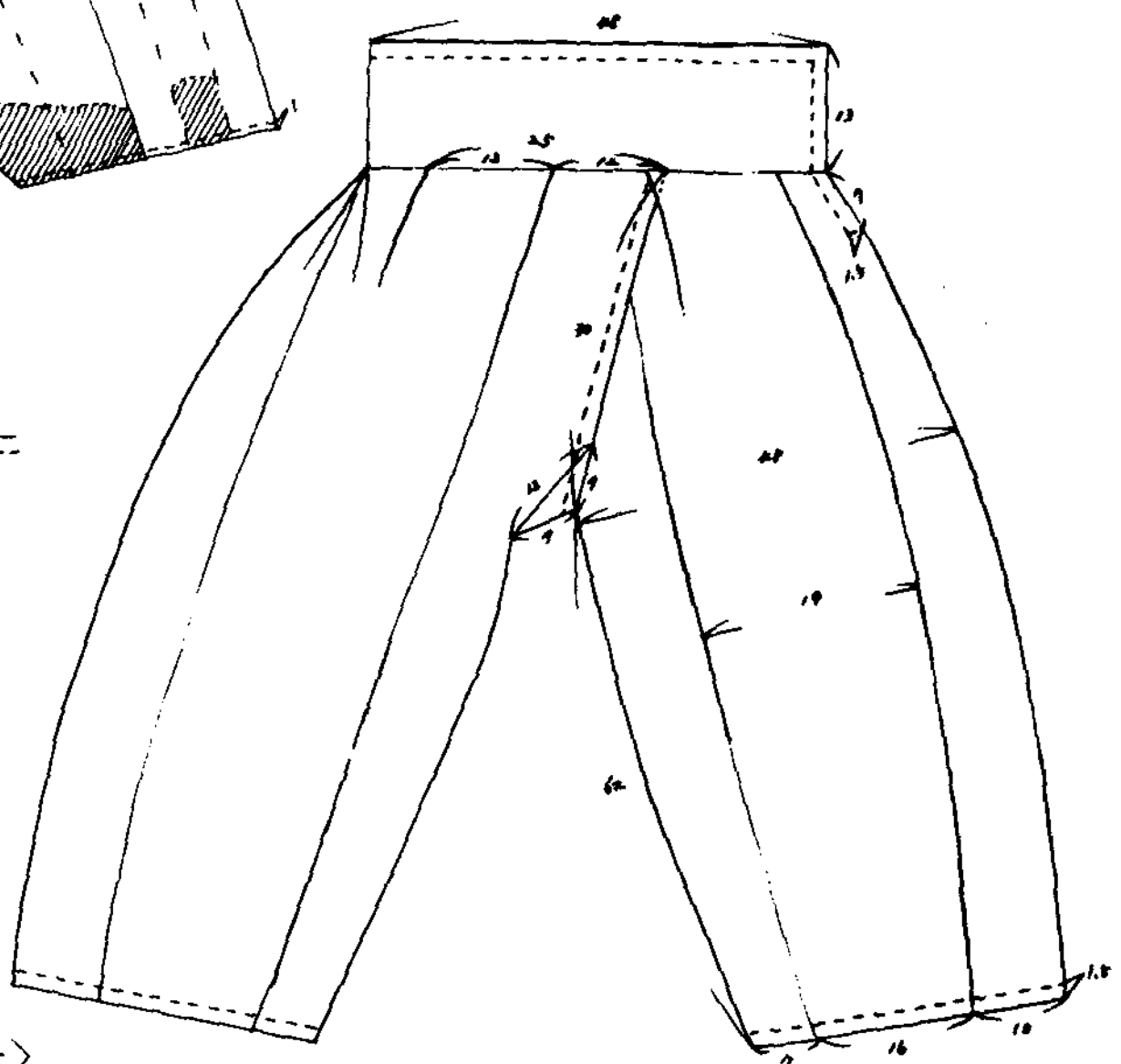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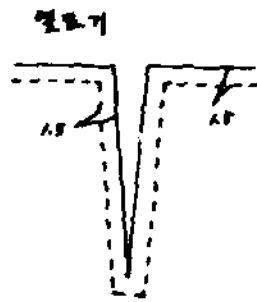
(2) 명주 솜 속곳

명주 솜 속곳 치수(단위 : cm)

- 1. 총길이 : 104
- 2. 허리둘레 : 96
- 3. 허리나비 : 13
- 4. 밑위 : 33
- 5. 밑아래 : 7
- 6. 부리 : 66
- 7. 트임 : 20
- 8. 바지길이 : 91
- 9. 배래 : 62
- 10. 주름깊이 : 옆주름 5, 앞중심주름 5



<명주 누비 솜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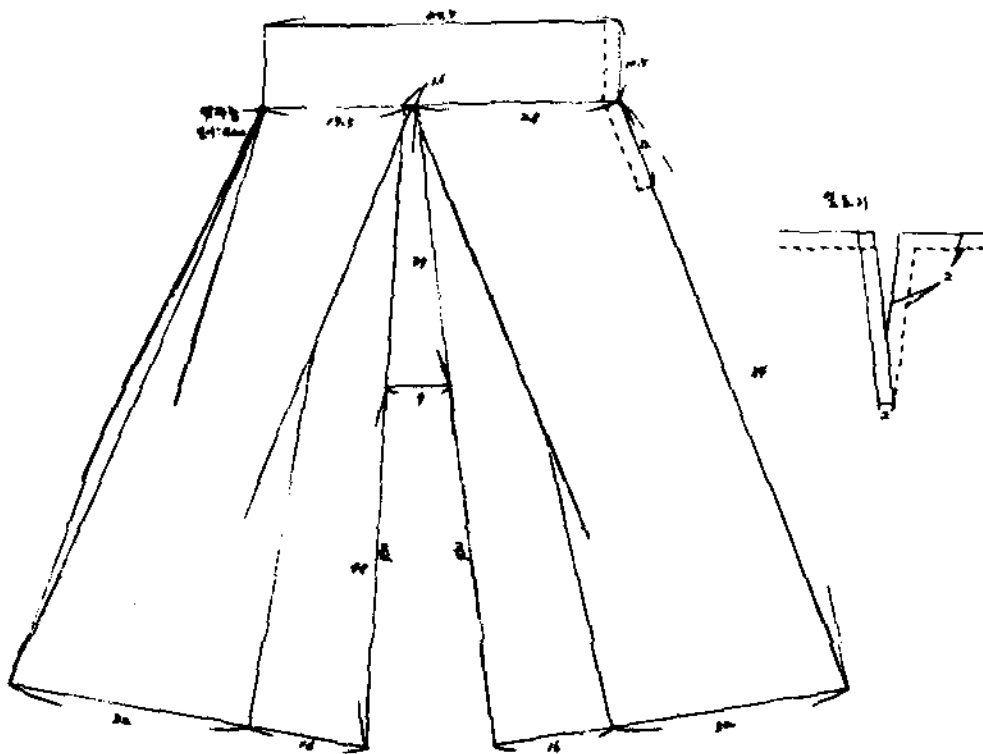
<명주 솜 속곳>

 파손된 부분

(3) 삼베 단속곳

삼베 단속곳 치수(단위 : cm)

1. 총길이 : 84
2. 허리둘레 : 95
3. 허리길이 : 10.5
4. 밑위 : 37
5. 밑아래 : 9
6. 옆트임 : 22.5
7. 부리 : 96
8. 배래 : 48
9. 주름길이 : 옆주름 4, 앞중심주름 4



<삼베 단 속곳>

[4]頸衣

목도리 치수(단위 : cm)

1. 가로 : 162
2. 세로 : 좌 35, 우 39

[5]足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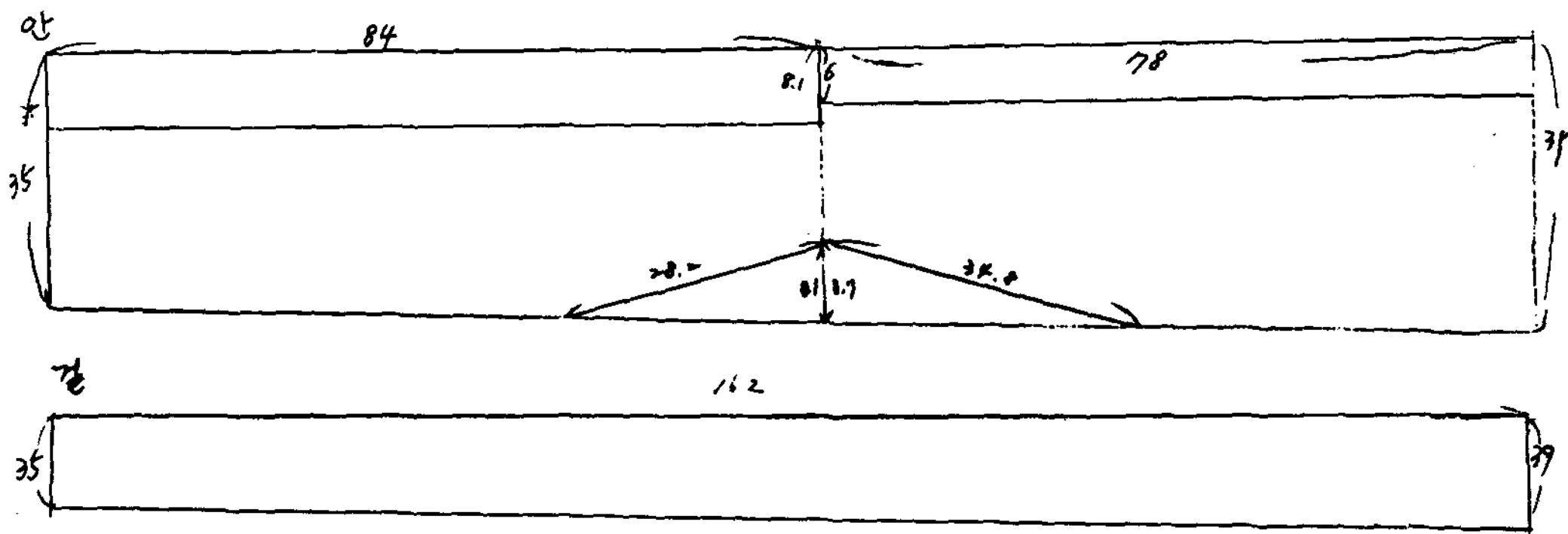
버선 치수(단위 : cm)

	(1)	(2)	(3)	(4)
1. 목둘레	17.8	17.1	17.8	18
2. 회목	15.3	16	18	17
3. 볼	10.5	10.5	11.5	11.5
4. 수늑	12.5	13	11	12
5. 앞목길이	15	13	14	11.5
6. 발길이	26.3	26.3	25.9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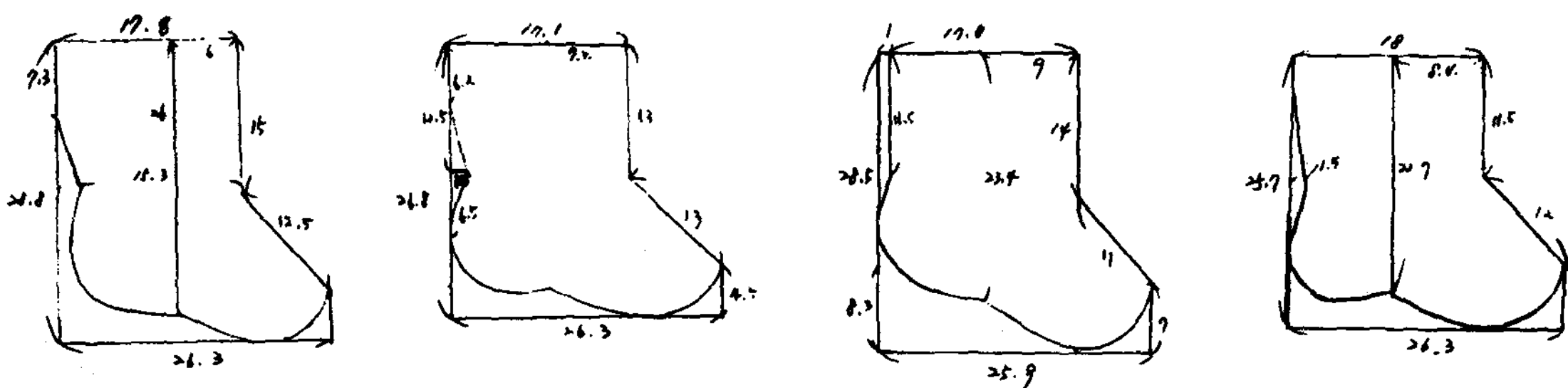
[6] 세조대

세조대 치수(단위 : cm)

1. 길이 : 178 (일부 파손)
2. 나비 : 1.1
3. 술길이 : 17
4. 술머리 : 5



<頸衣>



<버선>



[그림 1] 명주 솜 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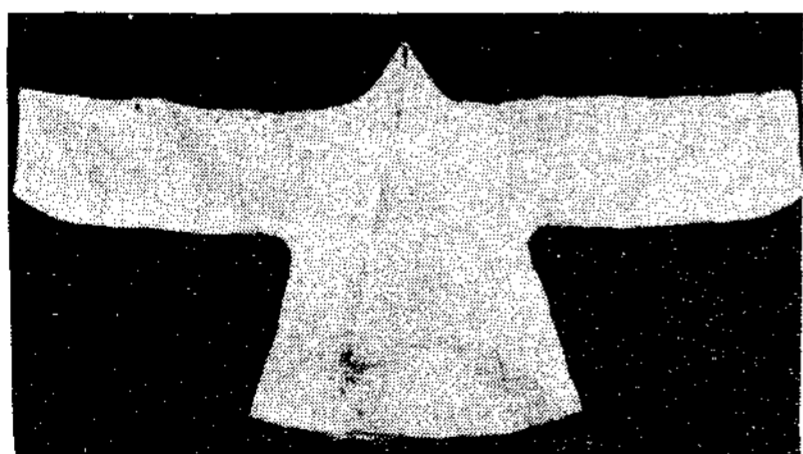
[그림 3] 명주 누비 회장 저고리 및 명주 누비 솜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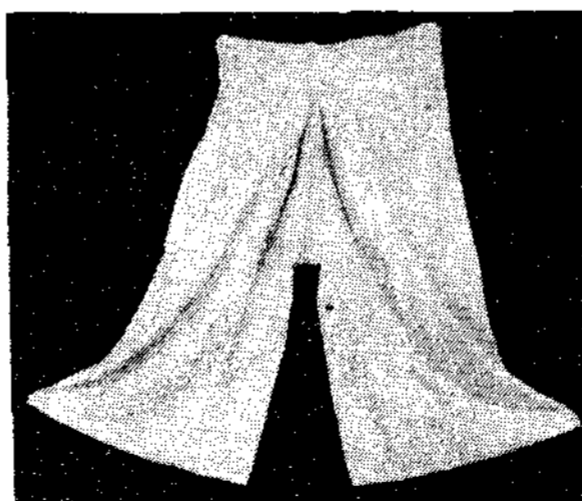
[그림 2] 명주 누비 솜 直領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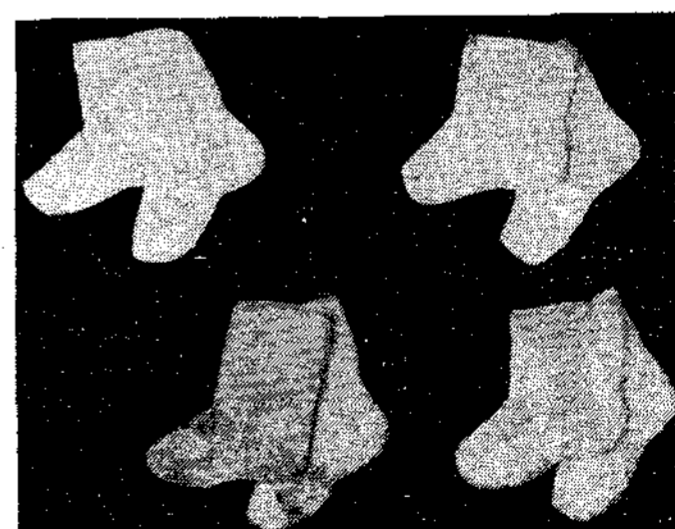
[그림 4] 명주 잔 누비 저고리 및 명주 솜 속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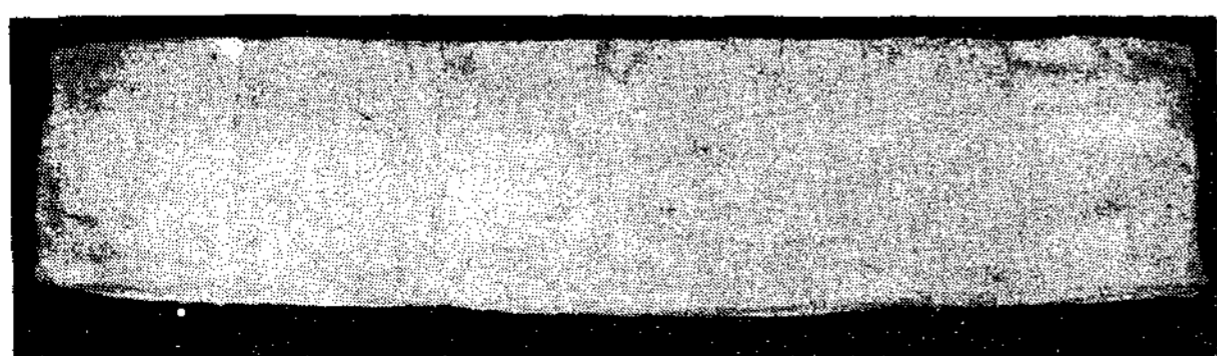
[그림 5] 소색무명 솜 저고리



[그림 6] 삼베 단 속곳



[그림 8] 足衣



[그림 7] 頸衣



[그림 9] 세조대

3. 出土 수의의 構造와 特徵

1) 袍

(1) 명주 솜 髦衣

① 총길이 130cm로 보통 袍類의 길이이다.

② 깃은 겹깃·안깃이 모두 오늘날의 겹깃과 같은 형태의 칼깃으로 깃나비가 넓고 길이가 길고 양깃이 양선편과 같이 붙어있다. 오늘날의 안깃 형태가 목판깃이고 안선편에서 따로 나와 달려있어 그 형태 구조상 다르다.

③ 겹선편이 이중으로 달려 있으며, 안쪽 선편의 어손솔기를 길쪽에, 겹선편의 어손솔기를 안선편쪽에 대어, 겹선편 바깥쪽은 끝은 솔기로 되어 있다.

④ 옆선에 앞·뒤 무가 달려있으며 옆선을 약 68cm 가량 터주었고 무의 어손솔기를 길에 대어 주었다.

⑤ 겨드랑이에 정사각형 무를 대주었다.

⑥ 겹깃의 도련선은 상당히 넓고 그 넓이가 뒷깃 도련넓이와 동일하다. 매우 아름다운 곡선을 갖고 있다.

⑦ 소매통은 37.5cm로 비교적 넓고 길이 95.5cm의 매우 긴 소매이다.

⑧ 동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고름의 흔적 역시 없어 수의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⑨ 겹감은 소색명주, 안감은 무명으로 사이에 솜을 두었는데 변색된 솜이나 상태는 새솜으로 보이며, 선편, 깃, 도련, 수구 등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약 1.5cm 나비로 시침을 해 주어 솜이 밀리지 않게 처리해 주었다.

⑩ 명주의 폭은 약 42cm의 넓이로 그 당시의 비단폭을 알 수 있었다.

⑪ 봉제실은 명주실을 사용하였다.

(2) 명주 누비 솜 直領袍

① 총길이 130cm로 명주 솜 髦衣와 길이가 같다.

② 소매길이도 비슷하나 소매통이 40.5cm로 약간 넓다.

③ 깃은 완전히 파손되어 원형을 알 길이 없고 다만 길과 연결되는 남은 조각 형태로 보아 겹깃, 안깃이 모두 髦衣와 같은 칼깃으로 짐작된다.

④ 옆트임이 없는 두루 막힌 直領袍로 두루마기와 같고, 길의 앞·뒤 양옆에 무와 겨드랑이에 정사각형 무를 대어 주었다.

⑤ 겹선편이 이중선편이며 선편을 이어 준 방향은 髦衣와 같다.

⑥ 겹깃의 앞도련이 넓이 113cm, 뒷도련 넓이는 108cm로 앞도련이 더 넓고 깃도 겨드랑 가까이 여며지고 있다.

⑦ 겹감은 연갈색으로 변색된 소색명주이고 안감은 고운 흰모시를 썼으며 사이에 솜을 얇게 두어 폭 약 10cm~12cm 간격의 시침으로 누볐다. 누비방향은 식서 올 방향을 따랐다.

⑧ 비단폭은 42cm폭을 사용했고 봉제실은 명주실을 사용하였다.

2) 유의

(1) 명주 잔 누비 저고리

① 등길이 49cm로 다소 짧고 앞치짐이 없이 앞·뒤길이 같다.

② 깃은 겹깃·안깃 모두 목판깃으로 깃나비가 10.5cm나 되는 매우 넓은 것이다. 겹깃은 오늘날의 저고리 안깃처럼 선편에서 따로 내어 달려있으나 안깃은 반대로 선편 안에 달려있다.

③ 袍類와 마찬가지로 앞뒤 양옆과 겨드랑이에 무를 대어 활동성과 기능성을 고려했고, 옆선은 유연한 곡선으로 처리되었다.

④ 소매는 진동 가까운 배래는 곡선으로 袖口 쪽은 직선으로 되어 袍의 소매 형태와 비슷하며, 넓이도 29.5cm나 되며, 길이 또한 매우 길다. 소매 끝에는 삼수를 달아 주었는데, 겹소매 끝에 약 27.2cm가량 소색 삼베를, 안쪽에는 저고리 겹감인 소색 명주를 같은 위치에 대어 수구 끝에서 겹으로 2.8cm 넘어가게 대었다. 삼수의 기워준 흔적은 수의용이 아닌 生存時 입던 것을 넣은 것으로 추측된다.

⑤ 겹감은 변색된 소색명주이고 안감은 비단과 綿의 交織布이고 사이에 솜을 얇게 두어 1.5cm 간격, 0.2cm땀으로 잔잔히 누볐으며, 곱게 누빈 솜씨가 매우 섬세하여 단시일에 수의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生存時 입던 옷으로 역시 추측해 볼 수 있다.

⑥ 도련선이 매우 아름다운 曲線이며 앞뒤 도련선과 선편의 안쪽 가장자리에 약 0.8cm 넓이의 명주 테이프를 곱게 둘러쌌다.

⑦ 깃은 길과 다소 다른 좀더 짙게 변색된 명주이고 동정은 없다. 봉제실은 명주실을 사용하였다.

(2) 명주 누비 회장 저고리

① 등길이 53 cm로 다소 짧으며 앞·뒤길의 차이가 없다.

② 깃은 겹깃과 안깃 모두 목판깃으로 겹깃나비 10.5 cm, 안깃나비는 8 cm로 점차 좁아지고 겹깃의 여밈은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여며지고 있다.

③ 겹깃머리 중앙에 달린 고름은 길이가 일부 파손되었고 오른편 진동선 위에 달린 고름은 폭 2 cm 길이 18 cm이다. 고름 폭이 좁고 짧으므로 裝飾性보다는 여미기 위한 實用的인 역할에 불과했으리라 본다.

④ 앞뒤 양옆에 무와 겨드랑 무를 대었다.

⑤ 소매길이는 다소 짧고, 좁으며 袖口로 올수록 곡선으로 처리되어 좁아지는 窄袖로 오늘날의 저고리 소매 배래선과 별반 차이가 없다.

⑥ 동정은 겹감과 같은 색의 명주로 넓이 6.5 cm이며 겹깃머리에서 약 16 cm 가량 올려져 달려 있고, 바느질은 오늘날의 동정달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⑦ 겹감은 변색된 연갈색 명주이고 안감은 소색무명으로 사이에 솜을 얇게 두어 약 7~9 cm 간격, 0.8 cm 땀으로 시침누비 하였는데 겹은 한두올 뜨고 안에는 밑실이 길게 나오도록 바느질 된 것으로 보아 누비옷이라기보다는 매끄러운 명주에 솜이 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깃, 겹깃, 안깃, 앞뒤 도련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2 cm 넓이로 시침을 해주었다.

⑧ 6 cm 넓이의 끝동, 깃, 고름, 겨드랑 무는 더 짙게 변색된 암갈색의 명주로 오늘날 삼회장 저고리의 원형으로 볼 수 있으며, 회장의 애초의 색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⑨ 도련은 유연하고 아름다운 곡선이다.

⑩ 봉제실은, 겹감 명주는 명주실을, 안감 무명은 무명실로 사용하고, 누비실은 명주실로 사용하였다.

(3) 무명 솜 저고리

① 등길이 66 cm로 앞의 저고리類보다 훨씬 길다. 앞뒤길의 차이가 없다.

② 깃은 겹깃·안깃이 모두 칼깃이며, 함께 출토된 저고리類의 깃 형태와는 다르고 袍類의 깃과 동일한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③ 앞뒤 양옆과 겨드랑에 무를 대주었다.

④ 소매 배래선은 명주 누비 회장 저고리와

그 형태가 같다. 진동선은 본래의 어깨선에서 안쪽으로 4.5 cm 들어가 시작되며 소매나비와 진동의 치수가 거의 같다.

⑤ 겹감은 粗惡하고 거친 소색무명이며 안감도 같은 천을 사용하였고, 사이에 솜을 두둑하게 둔 솜 저고리이다. 명주 옷과는 달리 가장자리 땀을 따주거나 누비지 않았다. 이는 무명布와 무명솜이 밀릴 염려가 적기에 누벼줄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⑥ 동정은 7 cm 넓이의 같은 무명이고 겹깃머리에서 17 cm 정도 떨어져 달았다.

⑦ 고름을 달았던 흔적이 없고, 봉제실은 무명을 꼬은 합사를 사용했다.

3) 고 의

(1) 명주 누비 솜바지

① 총길이 102 cm로 마루폭, 큰 사폭, 작은 사폭 등 바지의 세부 절개 상태의 구별이 오늘날의 남자바지와 별반 다를 바 없다.

② 겹감은 변색된 소색명주이고 안감은 고운 흰 모시로, 사이에 솜을 두어 식서 올 방향을 따라 7~10 cm간격으로 누벼 주었다. 부리, 허리의 가장자리에 1 cm 넓이로 돌아가며 고정시켜 주었다.

③ 봉제실은 겹감 명주는 명주실을, 안감은 무명실을 사용하였고, 누비실은 명주실을 사용하였다.

(2) 명주 솜 속곳

① 총길이 104 cm의 흡사 여자용 속곳과 같은 형태의 속곳이다.

② 양 가랑이를 각기 바느질하여 허리에서 함께 연결시켰고 밑아래 트임이 있다. 앞뒤 중심에서 양 가랑이를 약 17 cm가량 서로 겹치게 여며 주고, 여밈이 겹치는 위치는 양옆에는 앞뒤로 약 5 cm 깊이의 주름을 중심선을 향하도록 잡아 여밈이 주름속으로 들어가 겹에서 안 보이도록 처리했으며, 시점은 모두 허리선으로 넣어 주었다.

③ 밑아래에는 약 13 cm길이의 마름모꼴 무를 대각선으로 접어 삼각형 무 모양으로 대었다.

④ 허리폭은 13 cm이고 한쪽 옆선에 20 cm가량 옆트기를 하여 주었다.

⑤ 겹감은 변색된 소색명주이고 안감은 소색무명으로 사이에 솜을 두었고, 허리 옆트기, 부리, 밑아래의 가장자리에 1.5 cm 넓이로 돌아가며 시침으로 고정시켜 솜이 밀리지 않게 하였다.

⑥ 봉제실은, 겹감명주는 명주실을, 안감 무명은

무명실을 사용하였다.

(3) 삼베 단속곳

① 총길이 94.5 cm로 함께 출토된 바지류 중 가장 짧으며 제일 안에 입혀졌던 속곳으로 흡사 여자용 단속곳과 같은 형태의 홀바지이다.

② 다른 바지류와는 절개 세부 구조가 달라 바지 옆 중심선을 절개하여 앞뒤 폭을 이어주었고, 안쪽 배래선이 굵으로 되어 있으며 바지 가량이 한쪽이 세 폭으로 이어졌다.

③ 한쪽 옆선과 앞뒤 중앙에 주름길이 4 cm로 맞주름을 잡았으며, 다른 편 옆선에는 넓이 2 cm의 덧단을 따로 대어 약 22.5 cm가량 옆트임을 주었다.

④ 부리 넓이 96 cm로 매우 넓으나 바지통의 넓이는 다른 바지류와 별반 차이가 없다.

⑤ 밑아래에 앞뒤로 겹가래바대를 대주었다.

⑥ 허리는 겹으로 시접분을 모두 허리 안으로 넣은 후 안쪽에서 감침질하였다.

⑦ 천은 다소 변색된 흰 삼베이며 그 폭은 33 cm의 직조폭이다.

⑧ 봉제실은 무명실을 사용하였고 솔기는 홀솔이며, 시접 분량은 0.2 cm밖에 안 되는 고운 흠질이고 부리 아랫단은 곱게 말아 감침질하였다.

4) 頸 衣

① 가로길이 162 cm, 세로길이 가로길이에 약간의 치수 차가 나는 긴 목도리이다.

② 겹감은 변색된 소색명주, 안감은 소색무명으로 사이에 솜을 얇게 두었다. 안감에 여러 군데 이음새로 보아 생존시 사용품을 넣은 것으로 추측된다.

③ 봉제실은 명주실을 사용하였다.

5) 足 衣

① 목을 안쪽에서 이어준 수축버선으로 목둘레는 4점 모두 약 35 cm가량 된다. 앞목길이는 각기 11.5 cm, 13 cm, 14 cm, 15 cm로 모두 다르며 오늘날의 버선목보다는 매우 짧다.

② 수축은 직선으로 처리되었으나, 앞볼, 뒤꿈치 부분은 오늘날의 버선처럼 곡선이고 버선코가 불분명하고 뭉툭하다.

③ 발길이는 3점이 26.3 cm, 1점이 25.9 cm로 비슷한 치수이다.

④ 겹감, 안감이 모두 거친 소색무명으로 4점 중 1점은 겹버선, 2점은 솜을 얇게 두었고, 1점

은 솜을 두텁게 두었으며 버선목 끝까지 솜을 두었다.

⑤ 봉제실은 매우 굵은 무명실이며 넓은 땀으로 거칠게 흠질하였고, 버선에 볼을 대어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의用 버선으로 제작된 것 같다.

6) 세조대

① 넓이 1.1 cm의 廣多繪 정교한 짜임새로 섬세하게 만들어졌다.

② 파손되었으나 남아있는 한쪽 술이 달린 길이는 178 cm로 동강난 나머지 한쪽을 찾지 못해 원형을 보존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

③ 술은 전복술의 형태로 술 머리 5 cm, 술 길이 17 cm이다.

④ 색은 변색된 상태이기에 원래의 색을 알 수 없고 비교적 짙은 녹갈색을 띤 명주실로 짜여졌다.

III. 結 論

南平 文氏 族譜에 의하면 出土服飾의 主人公 文益新의 生卒年이 확실하므로, 위의 遺衣를 통해 朝鮮中期의 嶺南地域 男子服飾의 형태와 구조를 알아볼 수 있었던 하나의 遺例로서 의의가 크다.

復元된 수의를 分析해 본 결과는, 袍는 안깃, 겹깃 모두 칼깃 형태로 깃 나비가 넓으며, 二重 설이고, 옆선과 겨드랑이에 무를 대었으며, 髦衣는 옆선을 깊게 터주고 있다. 앞여밈은 겨드랑이에서 폭 여미게끔 앞품의 여유가 많으며, 소매의 통은 그리 넓지 않으나 길이가 길다.

저고리는 길이가 각기 다른 짧고 긴 것이 함께 출토 되었으며, 깃의 형태와 구조 역시 제각기 다르며, 소매 배래와 수구 역시 각기 다른 형태 구조를 갖고 있어 이전에 출토된 다른 지역의 壬亂 前後의 衣服들과 앞으로 比較 分析해 보아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또한 오늘날의 저고리 형태와는 다르게 겨드랑이와 옆선에 무를 달아 가능성을 고려해 주고 있다. 바지에는 오늘날의 바지와 같은 세부 절개선이 명확하다. 버선은 오늘날의 버선형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버선 모양이 아직 덜 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명주 폭은 42 cm이고 삼베는 33 cm 폭으로 짜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의로 지은 것과 生存時 입던 衣服을 함께 넣어 주었다고 본다.